

대전 유성구 전통과 함께하는 미래과학도시로 도약



1 온천로 전경 2 유성구 온천로에 있는 족욕장
3 대전 스타트업파크 조감도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온천관광과 과학 분야에서 잇따라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최근에는 유성구 공동이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대상지로도 지정돼 지속가능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유성구는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0년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와 지방비 포함 1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에 앞서 유성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0년 지역과학기술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올해의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됐다.

9월 10일에는 유성구 공동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스타트업 파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충남대 사이에 있는 유성구 공동의 3천632㎡ 대지에 연면적 1만2천㎡ 규모로 들어선다. 올해 5억원, 내년 121억원을 들여 지역공동체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민간주도형 창업시스템을 구축한 뒤 민관 융합공간으로 확대된다.

온천지구 관광거점조성사업은 온천이 쇠퇴하는 업종이지만 유성의 지역경제를 지탱해온 전통관광사업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관광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과학기술문화활성화 지원사업선정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바이오 업체가 밀집한 대덕 특구라는 유성만의 정체성을 재차 확인했다는 데서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유성구는 온천지구와 과학기술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연계해 지역경제는 물론 대덕 특구의 4차산업혁명을 직·간접 지원하는 효과

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뿌리 경제와 4차산업 등 전통과 미래 과학이 어우러진 탄탄한 도시 선순환구조를 앞당겨 구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온천지구 관광거점조성사업은 '미래형 온천으로 유성온천 지구의 새로운 문을 열다'라는 목표 아래 대덕 특구와의 협업을 통한 온천체험 특화시설·관광거점 복합공유공간 조성, 유성온천 둘레길, 온천관광 활력 UP 프로그램 등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성구는 2023년까지 4년간 180억원의 사업비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인적 역량을 온천관광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는 또 '올해의 과학문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과학문화도시 선포식을 갖고 각종 과학교육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한 유성 과학마을 축제(Go Together)를 열어 과학문화 선도 도시의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잇따른 정부 사업 선정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들의 사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동이 대전, 충청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이끌어가는 혁신 창업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